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3장 소신을 지키되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혈질인 사람들이 더러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출이 좀 솔직하다고 하죠.
그래서 손해 보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화, 조화를 얘기하는 그 화할 화 자 있죠.
이 화할 화 자를 얘기하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봅니다. 희로애락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하고 드러났으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그래서 중화 또는 이제 중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기 중용편에 나와 있는 희로애락지미발 그다음에

발이개중절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라고 얘기를 하였고 공자 역시 과유불급과

화이부동을 군자의 자세로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야

될까? 아니면 숨겨야 될까? 우리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감정을 늘 표출하고 나타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직장생활을 잘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과 대상을 바라볼 때 자기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거기에서 감정 표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속에 대인관계의 핵심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소신껏 얘기하면서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가끔씩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면서 무난하게
조직 생활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군자의 자세로써
공자가 한 말입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라.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부화뇌동하지는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지만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군자는 타인을 즉, 남을 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즉,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화뇌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달라요. 소인은 공자가 봤을 때는

이익을 좇는 사람. 말하자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치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무리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소인은 소리는 좀 요란한 것 같은데 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동이불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공이요.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한 번 공자한테 여쭙습니다. 원래 이 자공은

교언영색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말을
잘했어요. 자공 자체가 외교관이였었고 돈도 많았어요.

대단히 돈이 많아서 자공이 만약에 아니었더라면 공자의
생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많이 할 정도로

자공은 공자의 경제적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늘 자공을 편견했죠. 그런데 자공이 어느 날 여쭙보기를

선생님, 제자 중에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장은 좀 지나친 데가 있고 자하는 좀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어.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자장이
낮겠군요? 즉, 과한 부분, 지나칠 과 자입니다. 미치지 못하는

것 불급이죠. 그랬더니 공자의 답변은 의외입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나면 아니,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자공이
생각할 때는 자장이 지나친 것 즉, 능력이 더 있으니까 자하,

더 미치지 못하는 자하보다 훨씬 더 낮다고 생각했지만
공자의 생각은 바로 오히려 덜 미치고 그다음에 지나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중용의 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매사에 지나칠 만큼 뛰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 때로는 그 조직의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자가 본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그러면서 웬지 약간 부족해 보이지만 그 조직에서
별 탈이 없어 보이는 이것을 공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용에서 중화, 중용의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행동입니까? 늘 다른 사람, 상사의 눈에 튀게
행동하는 것과 또 그리고 늘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주목받고 또 조직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이런 거를
원하시나요? 아마 언젠가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다른
교수님들과 교류하면서 저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웬지 좀

나서지 않고 조금 있는 듯 없는 듯 행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절제된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또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고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고시 즉, 자고죠. 자고라는 제자는 공자는 우, 어리석을
우 자를 써서 어리석다고 했고요. 삼, 증삼은 노둔할 때 노 자

있죠. 노나라 때 노둔하며 그것도 이제 노둔하다. 좀 빠릿빠릿

못하고 웬지 좀 둔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자장은 벽,

치우칠 벽 자, 치우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유, 중유는
거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제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나 로나 벽이나 언이나 결국은 어리석고
노둔함과 치우치고 거칠다. 이것은 4명의 제자가 무언가

조금씩 부족한, 말하자면 중용의 도를 잃었다는 의식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공자가 이 4명의 제자를

평가하면서 생각했던 거. 그러면서도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높이 평가한 것이 뭘까요? 어리석을 우 자이죠.

이 어리석음은 공자가 얘기했던 불급의 차원과 사실은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공자가 안회 있죠. 공자의 제자

중에서 안회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께서 굉장히 칭찬을
했고 안회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천상여라고

할 정도로 공자는 상심에 마지않았죠. 그 안회가 결국은 죽기
전에 공자 곁에서 항상 공자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안회의

모습을 공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안회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했는데 어기지 않는 것, 불위여우, 어기지 않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 같았다. 그런데 물어나서 그가
사사롭게 혼자 있는 모습을 잘 살펴보니까 오히려 내가

부족한 점을 개발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회는,
안회는 불우, 어리석지 않구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회의 어리석음과 같지만 어리석지 않은 것. 불우와, 공자가
그 자하를 얘기하면서 불급이라고 한 그 지점이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으나 결코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요즘 굉장히 사회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빠르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 같은 거, 주변과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이 화이부동, 그다음에 과유불급.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한번 꼭 되새겨야 되고 그다음에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